

지성·메시·루니... 축구황제 누가 될까

월드컵 50여일 앞으로 ... 남아공이 뜨겁다

전 세계를 축구 열기로 달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가 오는 6월11일 (이하 한국시각)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요하네스버그의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남아공과 멕시코의 개막전(밤 11시)을 시작으로 한 달여 경기에 들어간다. 이번 대회에서 누가 최고의 스타가 될 것이며, 허정무호는 원정 16강에 오를 수 있을지 등을 예상해 본다.

박지성 있기에 대한민국 16강 자신

아르헨 작은거인 **메시** 득점왕 '0순위'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 **호날두** 호시탐탐

아프리카 영웅 **드로그바**도 후보

▲대한민국-그리스-아르헨-나이지리아 B조 전력=7회 연속(통산 8회)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한국은 유럽의 북병 그리스,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의 대표 주자 나이지리아와 B조 조별리그에서 두 장의 16강 진출 티켓을 다툰다. 안방에서 열렸던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창조했던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해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통과에 도전한다.

한국으로선 사상 첫 원정 16강 도전이 만만치 않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개막 다음 날인 6월12일 오후 8시30분 포트엘리자베스의 벨스만벨라베이 스타디움에서 그리스와 16강 진출을 점쳐볼 수 있는 첫 관문인 B조 개막 경기를 치른다.

한국이 그리스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쟁기며 첫 단추를 잘 끼운다면 상승세를 타며 한 수 위 전력으로 평가되는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와 경기에서 힘을 낼 수 있다.

2004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04) 정상에 오르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리스는 유럽팀 중 해볼 만한 팀이지만 '명장' 오토 레하켈 감독의 지휘 아래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리는 만만찮은 상대다.

역대 A매치 상대전적에선 한국이 1승1무로 앞서 있으나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10골을 뽑으며 득점왕에 오른 테오파니스 게카스는 경계대상 1호로 꼽힌다.

한국은 아르헨티나와 6월17일 오후 8시30분 요하네스버그의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맞붙는다.

아르헨티나는 화려한 개인기를 자랑하는 리오넬 메시, 카를로스 테베스, 세르히오 아게로, 디에고 밀리토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즐비하다.

조지력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으로선 믿을 구석이

지만 전종 강호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은 6월23일 새벽 3시30분 더반의 모세스마비다 스타디움에서 '슈퍼이글스' 나이지리아와 조별리그 마지막 대결을 벌인다.

두 차례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제패하고 1994년 미국 대회와 1998년 프랑스 대회에서 2회 연속 월드컵 16강에 올랐던 나이지리아는 최근 스웨덴 대표팀 사령탑을 지냈던 라트스라 거백(62)이 감독을 맡고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미드필더 존 오비 미켈과 에버턴에서 뛰는 중앙수비수 조셀 요보, 공격수 아예그베니 아쿠부 등이 나이지리아의 키플레이어로 꼽힌다.

▲득점왕 누가될까?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도 득점왕을 노리는 스타 선수들의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득점왕 자리를 놓고 이번에는 메시와 호날두, 루니를 비롯해 카카(브라질), 디에고 드로그바(코트디부아르), 다비드 비야(스페인) 등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메시는 지난 시즌 소속팀 FC바르셀로나가 정규리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스페인 국가왕립 컵에 이어 클럽월드컵, Uefa 슈퍼컵, 스페인 슈퍼컵까지 6개의 우승컵을 가져가는 데 일등 공신 노릇을 했다.

170cm가 채 되지 않는 작은 키지만 현란한 드리블과 넓은 시야, 탁월한 경기 조율 능력과 감각적이고 위력적인 왼발 슈팅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선수로 '0순위 후보'다.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꼽히는 호날두도 빼놓을 수 없는 득점왕 후보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호날두는 위력적인 중거리슈팅과 무회전 프리킥이 전매특허인 선수.

공격수지만 미드필더 못지않은 화려한 발재간을 갖춘 호날두는 잘 생긴 외모까지 겸비해 상품성 면에서도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박지성의 팀 동료로도 친숙한 루니 역시 이번 대회에서 일을 낼 태세다. 유럽 지역예선에서 9골로 잉글랜드 대표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번 시즌 26골로 득점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이밖에 호날두와 같은 팀에서 뛰고 있지만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는 상대팀으로 만나야 하는 카카,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19골)인 드로그바, 유럽 예선에서 7경기에 나와 7골을 터뜨린 비야 등도 득점왕 후보로 손색이 없다.

서승원기자swseo@kwangju.co.kr

코트디부아르 - 드로그바

잉글랜드 - 루니

포르투갈 - 호날두

아르헨티나 - 메시

대한민국 - 박지성

